

# 『총, 균, 쇠』를 바탕으로 분석한 『1984』와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형태별 기능 및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제도 등장 배경

2014학번 영어영문학과 서현지

##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제시되고 있는 가족 형태와 그 기능
  - 2-1. 『1984』의 가족형태
  - 2-2.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형태
3.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
  - 3-1. 동성연애자 가족
  - 3-2. 공동체 가족
4. 인간사회에서 가족 공동체가 갖는 의의
5. 결론

## 1. 들어가는 글

인간 사회는 군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가족’은 흔히 한 가정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현재까지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해당 개념의 주류를 이루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 언급할 두 책에서는 ‘가족’의 구성원 요건이, 혹은 가족의 의미 자체가 변모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기존의 가족제도 구성과는 달리 1인 가정이 때로 바람직한 형태로 그려졌으며, 현대의 가족구성과 일치하는 일부 가정에서도 ‘생활의 공유’ 보다는 ‘서로를 감시’하는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사회의 억압에 의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 비긴스』에는 혈연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이외의 새로운 가족형태 출현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가족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역사의 발전과정 중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중요시 했던 점에서 착안하여 『1984』와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형태 발생 배경을 분석하고, 『총, 균, 쇠』에 등장하는 과거의 인간 사회 공동체 모습을 바탕으로 해당 가족 형태가 어떠한 공동체와 유사한 형태이며 이들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가족형태와 그 발생 배경을 설명하며 인간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가 갖는 의의를 정의하고자 한다.

## 2. 제시되고 있는 가족형태와 그 기능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의 형태는 현대 사회까지 전승되어 오는 혈족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이외에도 새로운 공동체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84』와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 형태에 대해 언급한 본문을 발췌하고, 이를

『총, 균, 쇠』에서 소개하는 고대 공동체의 형태와 결부하여 그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책 내부의 배경을 바탕으로 특정한 가족 형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의하고자 한다.

## 2-1. 『1984』의 가족형태

『1984』의 공간적 배경은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이다. 해당 국가는 오로지 통제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존속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까지도 강력히 억압하고 있다. 아래의 발췌문을 통해 오세아니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가족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원들 간의 모든 결혼은 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 비록 그 원칙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 두 남녀가 서로의 육체에 이끌린 듯 한 인상을 보이기만 해도 그 결혼 허가는 곧바로 취소되었다. 유일하게 인정된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있었다. (중략)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독신 생활을 통해 완벽한 근육을 권장하기 위해 소년반성연맹 같은 단체까지 생겨났던 것이다. 아이는 모두 인공수정(신어로는 ‘인수’라고 한다.)으로 낳고, 공공기관에서 키우게 되어 있었다. (중략) 당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아이가 없다면 차라리 별거를 하라고 권했다.<sup>1)</sup>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기혼자이나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오세아니아는 사회 구성원들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본능적인 수단까지 통제함으로써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의 반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당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을 하였으며, 혈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임에도 그 유대관계는 깊지 않았다.

“누가 자네를 고발했나?”

윈스턴이 물었다.

“어린 내 딸년이야. 그 아이가 열쇠 구멍으로 엿들었어. 그러고는 이튿날 내 얘기를 경찰한테 신고했지. 일곱 살짜리치고는 꽤 똑똑하잖아? 신고했다고 해서 딸년한테 불만 같은 건 없어. 사실 그 애가 대견스러워. 그리고 보면 내가 딸년 하나는 제대로 키운 것 같아.”<sup>2)</sup>

위의 내용은 윈스턴이 체포된 이후 만난 이웃 파슨스와 한 대화의 일부이다. 파슨스는 그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혈족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신고한 것은 딸이었으며, 오세아니아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공동체마저 그 통제 하에 두고 혈족까지도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 균, 쇠』에 등장하는 고대의 인간 사회 중 오세아니아와 유사한 것은 중앙집권 사회, 그 중에서도 도독정치 사회이다. 윈스턴이 오브라이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고위 당원인 그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비평등 사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개인이 이룩할

1)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93-95쪽.

2) -Ibid., 326-327쪽.

수 없는 큰 규모의 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움직인다면 평민들로부터 빼앗은 것들로 상류층을 살찌우는 ‘도둑 정치’의 기능을 하게 된다.<sup>3)</sup> 오세아니아의 경우, ‘중요 주간’등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시선을 적국에 대한 반감으로 돌리고 빅 브라더를 상징으로 내세운 기득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둑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법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부정적인 중앙집권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소’일 뿐, 그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완벽히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가족 공동체마저 분열시킨 것이다. 즉,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분열되고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가족 형태는 전체주의 중심의 부정적 중앙집권사회, 즉 도둑 정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형태의 소규모 인간 공동체인 것이다.

## 2-2.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형태

조지 오웰의 『1984』의 배경인 오세아니아와 달리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는 사회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가족제도와는 다른 ‘공동체 가족’등을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제시하고 이혼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등 보다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해당 서적에 등장하는 다수의 등장인물 중 ‘루 스유프트’의 가정환경은 배경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루는 평소에는 친아버지 로저, 그의 두 번째 아내 캐롤, 이복형제 마이크와 함께 볼리나스에서 살았다. (중략) 한편 루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친엄마 쟈과 함께 살 수도 있었다. 화가인 쟈는 현재 인근 마을인 밀밸리라는 곳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큰 창고를 작업실과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sup>5)</sup>

해당 사회에서는 이혼을 사회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루는 자신의 친모와 계모 모두에게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복형제인 마이크와도 일반적인 남매와 같은 관계를 보인다. 또한, 루의 친모인 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가족’을 형성하였는데,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쟈 이외에도 켄, 케이시, 커트, 카렌이라는 20대의 남녀가 큰 집 하나를 세내어 하우스메이트로, 더 나아가 칼이라는 55세 남성과 함께 동업자로 생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sup>6)</sup> 이처럼 해당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공동체 가족’은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총, 균, 쇠』에서 제시하는 고대의 인간 사회 중 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것은 ‘무리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무리 사회는 인간 사회의 가장 작은 범주이며, 대략 5~80명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의 대부분 또는 전부다 하나의 확대 가족이다. 그들이 소유한 땅은 소집단이나 개인에게 분할되지 않고 집단 전체가 함께 이용하며, 당시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확보의 의무는 신체가 건강한 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해당 사회는 공식적인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3)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1998, 399쪽, 참조.

4) -Ibid., 402쪽, 참조.

5) 어니스트 칼렌바크, 『에코토피아 비긴스』, 최재경 역, 도솔, 2009, 6쪽.

6) -Ibid., 174-177쪽, 참조.

며, 지도자의 지위가 비공식적일 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 참여의 권리가 다루게 주어졌지만, 흔히 ‘평등주의적’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sup>7)</sup>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공동체 가족은 과거의 무리 사회와 유사하나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를 지닌다. 해당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집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를 존중하고 있으며, 참여의 권리도 동등하게 주어진다. 또한 해당 가족의 구성원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들이 작은 규모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가족 제도는 보다 큰 개념인 중앙집권 국가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해당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존의 혈연 중심 소규모 공동체 가족 제도에 속할 당시보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추구하는데 해당 공동체 결성의 동기가 존재한다.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배경인 미국은 『1984』의 오세아니아보다 개인의 의사를 훨씬 더 많이 존중해주는 사회이다. 해당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었고, 이러한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채택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 3.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

현대 사회는 인구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지만, 『1984』의 가족보다는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농업사회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총, 균, 쇠』의 무리 사회와 유사한 가족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예를 보면 산업화 이후 대규모로 지속되어 왔던 가족의 크기는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가족의 유형은 세대별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단순해지고, 단독가구의 증가에서 볼 수 있는 바, 그 종류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sup>8)</sup> 본고에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동성연애자 가족’과 ‘공동체 가족’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3-1. 동성연애자 가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뉴욕, 메릴랜드 등 미국의 일부 주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미국의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주가 동성 결혼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sup>9)</sup> 동성결혼 합법화 지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유명인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동성에 담론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며 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7) 채레드 다이아몬드, op. cit., 389-390쪽, 참조.

8) 함인희,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 : 1960, 70년대 산업화와 관련하여 = (A) STUDY OF THE CHANGE OF KOREAN FAMILY STRUCTURE : DURING INDUSTRIALIZING PROCESS IN 1960-8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7쪽, 참조.

9) “미 정부, 6개주 동성결혼 공식 인정...32곳으로 늘어”, <SBS>, 2014. 10. 27., 참조.

있다.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논조는 긍정이 높게 나타난 편이며, 이는 최근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언론사들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증거이다.<sup>10)</sup> 이처럼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성연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현대의 사상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동성연애를 공동체 일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다수 등장한다. 더불어 생존자당의 계명인 “더 이상 하지 말라!(No More)!”에는 성별·나이·종교나 인종적 태생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sup>11)</sup>는 조항이 있다. 자유를 중시하고 평등을 제창하는 사회인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미국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동성연애 역시 사회 구성원의 성적 기호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충, 균, 쇠』에서는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달랐던 것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 요인을 중시하는 해당 내용을 확장하여 해석하면 동성연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역시 동성연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공적인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인류가 다음 세대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잉태가 가능한 남녀의 결합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 있어 남녀의 사랑과 혼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생명의 잉태가 불가능한 동성연애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관습’은 동성연애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등장하였으며,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 3-2. 공동체 가족

위에서 언급했듯이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켄의 가족과 켄, 케이시, 커트, 카렌의 가족이 공동체 가족의 예로서 등장한다.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공동체로서 『충, 균, 쇠』에서 언급한 고대의 무리사회를 제시했었다. 과거의 무리사회는 구성원 간 의견제시 기회가 불균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했었지만,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식적인 지도자 없이 구성원 개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피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공동체 가족과 유사한 요소가 존재했다. 과거의 무리 사회와 현대의 공동체 가족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혈연관계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무리사회 구성원 중 대다수는 같은 혈족 내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공동체 가족’이라 함은 혈연 관계보다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하우스 메이트’, ‘쉐어하우스’ 등의 용어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1인가구의 다수는 20~30대의 미혼자들인데, 이러한 1인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비용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기에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sup>12)</sup> 때문에 젊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은 비용을 바탕으

10) 한윤화, 「동성애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52-53쪽. 참조.

11) 어니스트 칼렌바크, op. cit., 56쪽, 참조.

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의 주택마련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선택지가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필연적 상황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타인과 집을 공유하는 생활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SBS의 프로그램 룸메이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방송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진 출연자들이 함께 모여 일정기간 생활하며 그들 중 일부와 함께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침실까지 공유하는 모습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에코토피아 비긴스』에 등장하는 공동체 가족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공유하여 보다 정신 및 가치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공동체 가족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 4. 인간사회에서 가족 공동체가 갖는 의의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은 단순히 거주지를 공유하는 혈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 공동체는 혈족 중심의 소규모 집단으로부터 생활 전반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인간의 군집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왔다. 해당 의미의 확장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혈족 중심의 무리사회를 ‘가족 공동체’의 시작으로 하였던 과거의 관습이 현재까지 전해지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사회를 거쳐 보다 익숙한 가족의 형태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가족제도는 산업·정보화 혁명을 거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개인을 혈족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새로이 정의하려는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의 ‘가족 공동체’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 의미는 시대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주된 가족의 형태를 ‘일반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군집을 사회 변모의 한 양상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고는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총, 균, 쇠』에서 문화 발전 수준의 차이가 인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했음을 주장한 데 주목하여 가족제도 역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양상을 변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지 오웰의 『1984』와 어니스트 칼렌바트의 『에코토피아 비긴스』에 등장한 가족제도의 발생 원인과 해당 제도의 기능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4』에서는 사회의 억압에 의해 형태적으로, 혹은 유대관계에서 완전히 분열된 가족 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혈연관계 중심의 자연스럽게 여겨진 과거의 가족 구성원 이외에도 가치 및 이해관계에 맞추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족제도는 『1984』의 가족보다는 『에코토피아 비긴스』의 가족에 더 가까우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더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가족 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에 발맞추어가는 문화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2) 오정, 「국내 셰어하우스 인식 및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 house in Korea」,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6쪽, 참조.

## 참고 자료

### 기초 자료

- 어니스트 칼렌바크, 『에코토피아 비긴스』, 최재경 역, 도솔, 2009.
- 채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1998.
-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 논문 자료

- 오정, 「국내 셰어하우스 인식 및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 house in Korea」,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 한윤화, 「동성애 관련 뉴스 프레임 연구 :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 함인희,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 : 1960, 70년대 산업화와 관련해서 = (A) STUDY OF THE CHANGE OF KOREAN FAMILY STRUCTURE : DURING INDUSTRIALIZING PROCESS IN 1960-8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 기사문 자료

- “미 정부, 6개주 동성결혼 공식 인정...32곳으로 늘어”, <SBS>, 2014. 10. 2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031&plink=ORI&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031&plink=ORI&cooper=NAVER)>